

이재명 “투표로 내란 심판”…김문수 “맥아더 처럼 역전”

대권주자 4명 모두 사전투표 “새로운 대한민국에 투표를”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대권주자들도 투표장을 돌며 막바지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한 표를 행사했다. 이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이번 내란 사태도 국민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할지 본투표 할지는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텐데 가급적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출발하려면 국민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이 잘못된 결과를 벗어난 내란 세력을 엄중하게 강력히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도 이날 오전 부산 동구의 한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단 및 공동선대위원장단들도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소셜미디어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에서,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마쳤다.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구에서,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창원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인천 중구 자유공원역에 있는 맥아더 동상 앞에서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했다.

김 후보는 이어진 유세에서 맥아더 동상을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역전의 대박 격을 한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완전 적화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는 아름다운 조국을 지켜야 한다”며 “바로 오늘 사전투표를 하든 본투표를 하든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부평·미추홀·남동구에서 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청년들과(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인천 계양구 계양1동 주민센터에서 딸 김동주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전남 여수시 주암마을회관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를 이어간 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당의 전략 지역인 경기 지역의 시흥·안산·군포·안양에서 유세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화성을 지역구로 둔 이 후보는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이기에 이곳에서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에 이름을 알린, 정치 변화의 열정을 가장 보여준 선거구”라며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세대·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여수에서 사전 투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광주 동구에서 투표

국민의힘과 민주노동당이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후보들 중 유일하게 호남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합지인 광주에서 사전투표와 유세를 했다.

권 후보는 29일 여수 주암동주민센터(여수산단 소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이후 광주를 찾은 권 후보는 광주지역 186개 시민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후보는 “여수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워하는 곳”이라며 “노동자들의 삶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먼저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여수에서 사전투표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 개혁을 이뤄야 하는 대선”이라며 “호남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적박한 조건에서도 선도적으로 싸워왔다.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권 후보는 “민주주의를 올곧게 세우는 것은 차별과 불평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지만 대선과정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상대방 후보를 힐뜩고 깎아 내리는 정치의 모습이 여전하다”고 이번 대선을 평가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소리를 청취한 권 후보는 이날 오후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해 무기한 휴업 상태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같은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설치된 서남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이날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등도 한 전 대표와 같이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좋은 정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정말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으로서 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걸 알면서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면서 “호남은 그럼에도 좋은 정치를 위해서 정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그런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호남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원유세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불법 계엄을 한 윤석열도, 탄핵을 30차례 넘게 한 이재명도 이번 선거에서 퇴출하는 것이 국민의 정치”라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광주 정신이 표상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국혁신당 의원들,尹 집 가까운 곳에서 사전 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진보 성향 군소 정당들도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일제히 투표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와 가까운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혁신당과 같은 장소에서 투표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곳을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라며 “이번 대선은 윤석열의 폭정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경남 진주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유세를 하기에 앞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우리 삶을 구하기 위해 이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계엄 사태 당시 응원 붐을 들고 나선 20·30대 여성들과 함께 마포구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서광주농협 advertisement with logo, slogan '아름다운 동행', and list of services including NH Bank, zgm pay card, and various insurance products.